



문화 훈풍, 불교계는 동토



이기선 조계종 성문화재위원

'아프나, 나도 아프다'란 유행어를 낳으며 퓨전사극의 열풍을 몰고 온 텔레비전 드라마 '다모'...

이러한 문화계의 현상이 모두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은 주목할만 하다.

그런데 우리 불교계의 현황은 어떠한가. 아직은 동토(凍土)다. 언제쯤 씩아라도 돌아날까.



불자 세상보기

윤세원 인천전문대 정치학 교수

화살을 다섯번 맞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국민들인가 하고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와중에서 바로 다음 번에는 자신들의 집권을 확실하게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이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우리는 언제까지 퇴임하는 대통령이 국가의 원로가 아니라 범죄자가 되어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내용의 사건이 전혀 다른 시기에 다른 양상으로 문제가 되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말도 아닌 때에, 측근의 비리 문제를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으로 정치 쟁점화 시킨 것이다.

대통령이 전임자들처럼 최소한 자신의 임기 동안에는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일을 일찌감치 스스로 민의의 도마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러한 지적들은 일면적인 타당성을 갖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주장자들의 행보에는 공동체의 장애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이제 정치권은 정치적 쟁점에 대한 구태의연한 대응양식을 버리고, 위장의 가면을 벗어야 한다.

계기가 어떻게 되었든 정치권은 이 기회를 고비용의 정치구조에서 연유되는 부패사슬을 청산하고, 국가적 불행의 근원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문(本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마당 <현대불교>에 바란다

기쁜 마음으로 권할 수 있는 신문 되세요

■ 생생한 현장 목소리 담아주세요



황수경 서울 북악리3동

<현대불교>를 빠짐없이 챙겨 읽는 애독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현대불교>에...

<현대불교>에서 처음 시도한 색신 발행은 독자들에게 대한 배려라 생각한다. 바쁜 업무로 일과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기사를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독자의 입장에서 <현대불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코너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불전함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제각각이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 청년소식, 감동스토리 적어



강봉군 제주 용담동

창간 때부터 9년째 신문을 보고 있는 청년불자다. 먼저 <현대불교> 창간 9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 더 좋은 신문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한 기사를 적은 점은 아쉽다. 청년회 활동을 하다 보니 다른 지역과 사찰에서는 청년법우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가 궁금할 때가 많다.

또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사도 보고 싶다. 신행단체나 사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보면, 불자들이 직접 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많다.

지금까지 9년처럼 앞으로도 불교 발전에 힘쓰는 <현대불교>가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가 주위 불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권할 수 있는 신문, 불자들에게 사랑받는 신문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은 독자들의 공통된 바람일 것이다.

중단 소식, 불자들의 생활, 교양, 문화, 문화재, 학술 등 독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내용을 깊이 있게 전하는 <현대불교>를 매주 기다리는 독자들이 있음을 잊지 말기...

■ 독자와 함께하는 코너 많았으면



손지연 서울 양재동

다른 신문보다 <현대불교>를 더 꼼꼼하게 보는 편이다. 전체적으로 불자들에게 대한 정보가 다양하고 볼거리가 많기 때문이다.

신문을 꼼꼼하게 보다보니 평소 <현대불교>에 바라는 점이 몇 가지 있었다. 먼저 생활불자 소식란은 따로 짰으면 좋겠다.

또 부처님 일대기에 대한 삽화는 '여호와와 증인' 같은 타종교의 그림과 비슷해 불자들에게 거부감을 준다. 신문을 보고 주위에도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문을 본 다른 불자들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 해외 불교 성지에 관심이 많아 인도그림기행을 잘 보고 있다. 해외 불교 성지에 대한 소개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심 있는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기사로 접한 국·내외 유명한 불교성지를 직접 순례하고 전문가의 설명을 듣거나, 산사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도 많았으면 한다.

동·서 화합을 위한 방법법회



영·호남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서 화합을 위한 방법법회를 10월 16일 내장산 내장사(주지 재훈)에서 봉행했다.

장군축배

한낮에 도둑맞은 탕화



10월 10일 오후 3시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정리에 소재한 대장사 법당의 탕화가 없어졌다. 도난당한 탕화는 가로, 세로 각 2m 크기로, 1932년 대장사 창건 때 법당에 봉안됐으나 창건 이전부터 전해 내려온 탕화다.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도교사 박봉순 2001년 10월 SBS 호기심한국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파동명상 요법」에 대하여

모든 존재는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삼라만상은 진동하고 있고, 제각기 고유한 주파수를 발하고, 또한 저마다 독특한 파동을 가지고 있다.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 파동명상제령: 제주(祭主) 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기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기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 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 수련대상: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10월 27일 ~ 11월 1일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가능, 전화문의 바람)
① 파동명상 전문가: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상담 후 결정